

(사)한국육계협회 공식 출범

현판식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2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등 농가를 비롯한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사)한국육계협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병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현판식은 육계협회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전제한 후 “육계협회 출범식을 계기로 FTA 타결 등 닭고기 소비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육계산업을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말뿐인 상생협력이 아니라 서로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견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울러 정병학 회장은 “육계협회의 탄생부터 사무실 이전까지 협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회는 지난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다.

축산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명칭 변경 관련 향후 협회 운영방안 밝혀



본회는 지난 8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축산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협회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과 향후 협회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협회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지난 2011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소비가 정체되고 육계 생산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업계 불황이 장기화로 돌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시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고 여기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닭고기 업계 전체가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가와 계열화사업체가 함께 하는 조직의 출범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 수출 강국과의 FTA 체결로 7~8년 후면 관세가 없어져 외국산 닭고기가 우리 소

비시장의 무혈입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국내 육계 생산성은 이들 국가의 7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육계산업 안정’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중지에 따라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함께 어우르며 역할 분담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해 나가는 공동 운영체계를 구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본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에 육계협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계열화사업자 위주에서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공동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농가와 계열사 간에 소통·협력 증진 및 교류를 통한 권익 증진과 아울러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육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집 I P58 참조).

가축검정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검정의 의무’ 등에 대해 건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종별로 각각 운용되고 있는 검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축검정기준 전반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축종별 검정기준 고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축검정기준 통합 고시안을 각 시도 및 관련 단체에 시달한 바 본회는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축검정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가축검정의 목적은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는데 있는데, 현재 국내 육종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고 세계적으로 경제능력검정이 입증된 육종회사에서 능력검정이 필요 없는 1회용 원종계 및 종계를 세계 각국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육용 원종계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 없이 불필요한 검정비용만 발생하게 되어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본회는 검정의 의무와 관련 육종농장은 매년 경제능력검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외국의 육용 닭 육종회사로부터 육용 원종계 및 종계를 수입하여 1세대만 사용하는 경우 능력검정을 생략하고 육종회사의 유전능력 시험능력서(관리지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단, 국내에서 육종이 이뤄지고 있는 토종계의 종계에 대해서는 종계능력검정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알림

회원사에 공문 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동안 식육가공품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품목별로 시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비용이 발생하던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달

리한 경우에도 원재료, 성분배합비율, 생산공정이 동일한 경우 대표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식육가공품에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는 이같은 내용을 각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비용절감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 확대회의 개최

하반기 수급전망에 대해 논의

본회는 오는 9월 22일 대전 유성구 소재 아드리아호텔 5층 크리스탈홀에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확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닭고기 수급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월간 닭고기' 창간 19주년 기념 이벤트 정답자 발표

당첨자 38분께 닭고기 선물세트와 치킨 외식상품권 증정

본회는 지난 7월 '월간 닭고기' 창간 19주년을 맞아 실시한 '퀴즈 풀고, 닭고기 받고' 이벤트의 정답자 중에서 38분을 추첨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해당 상품을 응모하신 주소지로 각각 택배 발송할 예정이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당첨자 명단〉

구분	이름	주소	구분	이름	주소
닭고기 선물세트 (19명)	강신중	전북 익산시 갈산동	치킨 외식 1만원 상품권 (19명)	강종금	서울 광진구 회양동
	김광명	경기 양평군 청운면		곽해주	서울 구로구 개봉동
	김달봉	전남 구례군 토지면		권화봉	경기 오산시 서동
	김지성	서울 노원구 공릉로		김경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금은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김동주	충북 증평군 증평읍
	박영희	전남 남원시 보절면		김미정	서울 동작구 상도3동
	배현수	전북 익산시 망성면 여강로		김민수	경기 안성시 미양면
	성미란	경북 상주시 낙양동		김민정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양영숙	경북 안동시 남선면		김수향	전남 여수시 오천동
	이옥심	전남 무안군 청계면		박미현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이혜원	충남 서천군 종천면		박정숙	전북 군산시 수송동
	임효상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원혜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2길
	장세열	전북 군산시 삼학동		윤은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정다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이선영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조미란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이소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조인순	인천 중구 중산동	이예지	경기 파주시 월롱면		
주영혜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이지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허상영	전남 구례군 구례읍	장재훈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홍영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최은희	경북 경산시 남천면		